

국가·전쟁·여성

마태 1:1-17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국가’나 ‘국익’이라는 명분이 걸렸을 때 보통 사람의 상식이나 도덕감정, 정의감과 배치되는 행동이 쉽게 용인됩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국가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국가’가 하는 일이고, 전쟁은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앞세우든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어 하고 죽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 본성일 텐데, 거기 거슬러서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무릅쓰게 만드는 마법을 ‘국가’는 행사합니다.

국가의 발생에는 언제나 폭력, 전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의 건국신화들은 신화적인 살해행위에 대해 언급했을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 건국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둑 신은 어머니 티아마트를 죽입니다.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야마토 타케루, 로마의 창건자 로물루스,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호두르 등 건국신화의 영웅들은 형제살해자들입니다. 이것은 건국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종의 정치적 희생제의, 새로 창건되는 국가로부터 현존하는 적의 위협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정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국가가 무엇인지를 국민의 의식 속에 심어줍니다. 국가는 필연적인 인간의 조직형태이며, 그 운영방식은 본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또 국민은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국신화가 전하는 모친살해, 형제살해는 국가란 보통 사람의 판단 영역 위에 있으며, 국가의 관리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국가는 우정, 사랑, 혈연 같은 인간적 유대로부터 벗어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에는 친구, 아버지, 형제, 심지어 아들도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전쟁이라는 비도덕적 행위를 도덕화 시켜주는 이념적 장치를 일찍부터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른바 “정당한 전쟁” 이론, 정전론(正戰論)입니다. 그러나 정전론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군대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는 국제법과 군법상 허용되는 일만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전쟁과 강간, 성폭력은 늘 같이 갑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비전투원 살해와 약탈, 강간 등이 국제법이나 군법상 대부분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경향은 군대의 전통과 문화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잠정적인 위협으로 있다 전시에 현실화 됩니다. 정전론의 허구는 군대가 누구를 죽이는가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전쟁법은 가급적 적의 전투원만 죽이고 비무장 일반 시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사보다 일반시민 쪽이 더 많이 살해됩니다. 20세기에 국가에 의해 살해된 외국인의 수는 6,845만 2천명이었지만, 자국민의 수는 1억 3475만 6천명, 즉 두 배에 달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전쟁은 그 자체로 끔찍한 폭력입니다. 아무리 고매한 철학자, 신학자들이 전쟁에 윤리를 덧씌워도 전쟁은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정전론은 전쟁을 저지르는 왕들과 장군들의 명분찾기를 도와줄 뿐 전쟁의 야만성을 바

떠놓지는 못합니다. 침략전쟁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침략전쟁이야말로 로마제국을 비롯한 과거와 현재 제국들의 존재근거이고, 단지 그것을 변방 야만인들을 교화한다거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수립한다고 포장할 뿐입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논리를 통해 전쟁을 벌이는 자의 수사는 진화했을지언정, 전쟁의 실상은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야욕, 비전투원의 무차별 살인, 성폭력의 횡행일 뿐입니다. 정당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냥 전쟁, 끔찍한 살육극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읽은 성서본문은 이스라엘이 부족시대인 12지파동맹시대로부터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즉 이스라엘의 국가성립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지속적인 침략과 그 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12지파 부족동맹이 성립된 뒤에도 200년 내지 300년 동안 국가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 야훼가 ‘노예의 집으로부터 해방하는’ 신이고(출애 20:2), 야훼종교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본질적으로 반왕권적 성격을 지닌 종교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사사 8:22-23, 9:7-15)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국가를 수립하는 길로 가게 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에는 왕정제가 순조롭게 이스라엘에 정착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원전 1000년 경 이스라엘 부족동맹은 안팎으로 국가수립을 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토지가 공급하는 농업, 목축의 산물이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교역이나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시장이 성립되었으며, 교역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필요성도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당연히 보다 크고 복잡한 정치사회 시스템으로 변화해 갈 것을 요구했고, 비교적 평화롭게 거주했던 산악지대로부터 평야지대로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밖으로부터는 해안평야 지역에 블레셋인들이 정착하면서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철제무기와 전차군단, 궁병(弓兵)을 보유하고 있던 블레셋인들에 비해 이스라엘은 단연 열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계속해서 패배했고, 율법을 모셔둔 ‘계약궐’조차 전리품으로 빼앗겼으며(삼상 4:1-11), 당시 이스라엘의 성소이자 주요 거점이었던 실로도 파괴당했습니다.(렘 7:12-14 참조) 문자 그대로 존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블레셋인의 침략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적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농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어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어 농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농민 민병대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화 된 군대를 가진 침략자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신도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족들 간의 평등하고 자발적인 결합을 기반으로 했던 부족동맹으로부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정제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에 전념할 전사계급과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부역을 통해 농민을 합법적으로 수탈할 수 있는 사회체제로 이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체제로 이행해야 할 이유는 넘쳐났습니다. 국가체제로 이행하면 본래 자급자족적이었던 이스라엘 부족사회와 촌락공동체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계급분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장의 난국을 타개할 강력한 사회지도력의 출현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왕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다 큰 권력, 보다 제도화된 지배구조를 지닌 국가의 출현은 모두가 원하는 바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사회적 상식에 반해서 왕정제의 도입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묘사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쳤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는 데서 더 나아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70명에 이르는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요담이 일어나 저 유명한 ‘요담의 우화’를 말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로 하고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에게 차례로 왕이 되어달라고 청하지만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청을 했고,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모시려는가? 정녕 그렇거든 와서 내 그늘 아래 숨어라. 그러지 않았다가는 이 가시덤불이 불을 뿜어 레바논의 송백까지 삼켜버릴 것이다.’(사사 9:8-15)

이 비유를 말한 요담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을 다스렸으나 부족동맹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성루 옥상에 피신한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기 위에 성루 문앞에 있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여자한테 죽게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그는 자신의 무기당번에게 칼로 죽여달라고 했고, 그는 그렇게 무기당번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사사 체제, 부족동맹 체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부족동맹시대에서 왕정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근육질의 남성 폭군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은 꺾였습니다. 이때는 막간극으로 끝났지만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의하면 백성들은 당시 부족동맹의 지도자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백성들의 요구는 “악으로 보였고”, 이스라엘 본래의 왕인 야훼를 배척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분의 일 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먹고 양떼에게도 십분의 일 세를 거두어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그 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 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체도 하지 않을 것이다.”(삼상 8:6-18)

국가의 본질을 이보다 쉽게 말하는 본문이 또 있을까요?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은연중에 왕권을 제한하지만 결국은 그와 충돌하고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서 시작된 왕조가 포로기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마태나 누가가 전하는 예수의 족보를 실제 예수의 족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족보를 복음서 첫머리에 실은 저자들의 의중은 읽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세부사항에서 틀리는 부분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윗왕가의 족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전성기의 왕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이 묘합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마태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하는 정형화 된 문구로 이어지고, 그 문구대로라면 16절에서도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윗 자손으로 예수를 그리는 것이 본래 족보의 의도였다면, 분명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로 서술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으로 기술됩니다. 앞서 15절까지 다윗 가문인 예수의 부계혈통이 서술되었는데, 마지막 절정인 16절에서는-지금까지 왕들의 이름을 열거했던 노력을 헛수고로 돌리면서-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서술됩니다. 학자들의 설명은 다양하지만, 간단히 말해 16절에서는 예수탄생에 관한 두 전승, 즉 다윗자손 전승과 동정녀탄생 전승이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전환도 특이하지만,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도한 남성 왕들의 계보 중간에 문득문득 등장하는 여성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마태가 이 네 여인을 선택한 것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자랑스러운 여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네 여자들은 다윗가문의 명예를 특정한 방식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를 다윗 자손으로 그리는 것이 본래 의도였다면 마태는 이들을 등장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명문가의 아름답고 총명한 며느리도 아니었고, 권세가의 현숙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 ‘오점’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창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 다말, 늙은 보아즈의 품속에 들어가 그와 한 몸이 되어 생존하는 과부 룻, 가난한 하베루들이 여리고로 밀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생 라합,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장본인의 아내가 되어 그의 가계를 이어주었던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이 네 명의 여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특이점, 내지는 ‘하자’가 있는 여자들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적극성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나간 여자들입니다. 왕들의 족보에 들어와 그 도도한 흐름을 끊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은 넓은 의미에서 왕들로 대표되는 국가에 의해, 가부장제 사회에 의해 성적으로 수치를 당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는 가부장제 사회,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왕으로 대변되는 국가에 의해 성적으로 상처받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곳곳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간 여성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가부장제에 의해, 가부장적 국가에 의해 수치 당하고 상처받은 여성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이 여자들도 수치를 당했지만 일어섰습니다. 국가에 의한 여성의 희생에는 거의 항상 성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네 여자들은 마리아로 연결됩니다. 예수는 이 네 여자들의 후배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가부장제에 의해 희생당한 여자들의 후손을 구원자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놀랍고도 특이한 성격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표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출생에서 굳이 남성의 역할을 배제하는 동정녀로부터의 탄생 표상은 예수라는 인물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의 역사의 실패와 과오를 밝히 드러내고 그 역사를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의 족보에서 그 역사의 잘못된, 비뚤어짐은 앞에 등장했던 네 여인들의 왜곡되고 유린당한 삶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들은 비뚤어진 역사의 희생자이며, 동시에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지탱해온 생명의 원천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예비치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은 ‘국가’는 결코 여자의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는 형태로 인간공동체를 조직해온 인류의 오랜 역사,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폭력, 그리고 그 끔찍한 폭력을 가장 극악한 형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여성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그 자체로 평화의 근원적 의미를 묻게 하며, 근원적 평화에의 갈구를 온몸으로 증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디의 죽음은 국가의 본질과 근원적인 평화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간디는 막스 베버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본질적으로 폭력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자신과 고락을 함께 했던 ‘국민회의파’가 신생국가 인도의 부속물이 된 것을 보고 절망했으며, 국가의 개혁능력에 대해서도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한 이후 “그는 반복해서 국가권력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제안을 했습니다. 폭동지역에서 경찰과 군대를 철수시켜라, 파키스탄과 전쟁 중임에도 국고에서 파키스탄의 몫을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이 요구를 위해 간디는 목숨을 건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인도 정부는 간디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파키스탄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식이 나두람 고드세로 하여금 간디를 암살할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간디의 요구는 신생국가 인도의 헌법구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간디는 인도에 존재하는 70만개의 마을들에 근거한 마을공화국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5명으로 구성된 판차야트를 기초로 그 윗 단계에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계속 확장되어 결국 인도 전역을 관할하게 되는 계단식 체제를 생각했습니다.” ‘국민회의파’가 국가기관에서 완전히 물러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이동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간디는 단순히 이론적 관심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그런 제안을 했고, 그런 일을 해나갈 변화의 주체로 간디 자신과 ‘국민회의파’, 그리고 간디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명백히 불가능해 보였

던 일들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간디의 제안을 위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간단히 그가 사라져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간디의 헌법 제안문이 의회위원회 의장에게 전달된 지 몇 시간 후에 간디는 암살당했습니다.

간디의 죽음이 인도라는 새로운 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역설적으로 암살자 나두람 고드세와 발언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나두람 고드세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조리있고, 명석하고, 애국적이며, 용감했습니다.” 간디를 쏘기 전 그는 두 손을 모아 존경을 표시했고, 총을 쏜 후 총을 든 손을 허공으로 올리면서 “경찰!”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드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간디를 죽이면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명예를 모두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간디가 사라지면 분명히 인도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이 되어서, 응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군대를 보유하여 강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내 자신의 미래가 파멸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가는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디가 죽자 근대 국가로서 인도건설은 착착 진행되었고, 고드세의 기대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대국가 인도의 건설을 위해 간디는 죽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대국가의 근원적 폭력성이라는 제단 위에서 간디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간디의 죽음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고드세는 근대적 조국 인도의 건설을 위해 간디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대 국가의 원리란 막스 베버에 의하면 “합법적 폭력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국민국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신념이고, 따라서 국가는 의심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국가를 세우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라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정치학자 러미스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국가의 마법’이 생겨납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국가의 이름으로는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마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폭격기 조종사는 수많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지상폭격을 가할 수 있고, 과학자는 자신이 개발하는 무기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산산조각 낼지 알면서도 불철주야 그 일에 매달립니다. 이처럼 ‘국가의 마법’은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히’ 하게 만드는 요술을 부립니다. 이 때문에 분명 거기에는 ‘어떤 진심’이 있었을 테고, 그것은 ‘고드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가 구상한 새로운 인도 헌법을 통해 “합법화 된 폭력”으로서의 국가라는 것이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국가의 마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당시 인도 상황에서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었음을 가르쳐주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국가’에 의해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고드세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내 안의 간디를 죽여야 한다는 강박이며, ‘국가의 마법’에 걸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실체와 대면하는 데서 출발하기를 회피하는 것이며,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근본적으로 성립불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악이 무엇인지 보기를 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 로빈슨 제퍼스의 말대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정의(正義)나 행복의 꿈에 속지 않는” 명석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비합리적 몽상가로 보이겠지만 어느 시대에나 끔찍한 재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희망을 보존해온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상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실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없는 곳에서 ‘국가의 마법’은 작동하기 시작하며, 우리 안의 간디는 죽임을 당하고, 희망도 사라집니다.